



건강 상식(韓方)

— 杜冲(두충) —

자료제공 : 박진성 원장

- 한의학 박사
-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외래교수 역임
-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정회원
- 현) 오승한의원 원장 02)534-2133



I. 처음에

허리 무릎 관절이 약하면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두충을 소개합니다.

두충은 두충나무과 속한 낙엽관목인 두충나무의 樹皮(수피)를 약재로 사용하며, 옛날에 杜仲(두중)이란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득도하였다 하여 두중이라 하였으며 思仲(사중), 思仙(사선)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두충이라 부르면서 杜仲(두중)이란 한자를 쓰며, 그냥 杜冲(두충)이란 자도 쓰기도 하며, 나무껍질이나 잎에 실같은 섬유질이 많아서 木棉(목면), 絲棉皮(사면피)라고도 부르며, 좋은 약재일수록 자르면 실이 많이 있고, 약재로 사용할 때는 소금물에 볶아서 사용한다.

맛은 달고 약간 매우며 무독하며, 肝(간) 腎(신)의 경락으로 작용한다.

약리작용으로는 혈압강하, 항노화, 콜레스테롤강하, 항염, 진정·진통, 면역조절, 혈액응고, 자궁수축, 항알레르기, 항균작용이 있다고 보고 되어 있으며,

II. 효 능

효능으로는 補肝腎(보간신) 強筋骨(강근골) 安胎(안태) 작용이 있다.

1. 補肝腎(보간신) 強筋骨(강근골)

간과 신장기능이 약하여 생기는 허리 무릎 관절증상에 사용하며, 양기부족 하복냉감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에 사용하며, 요슬통에 牛膝(우슬)과 같이 사용하며, 요부로 약효를 발휘할 때는 꼭 두충을 사용하여 다른 약재의 힘을 끌고 가는 작용을 한다.

2. 安胎(안태)

임신중 유산증상으로 태동불안이나 자궁 출혈이 있을 때 사용하며, 續斷(속단)이란 약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장기능이 약하여 생기는 고혈압에 사용된다.

하체가 약하여 오래 걷거나 앉을 때 허리 무릎이 좋지 않으며, 신장기능이 약한 고혈압 증상이 있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두충차를 적극 추천합니다.